

2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보험권 혼조..`워싱턴 시선집중` [다우: 8270.87 (-0.12%)	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보험권 혼조세로 마침. 이날 뉴욕 증시는 내일(10일)로 예정된 금융구제안 발표와 경기부양법안 표결을 앞두고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 금융구제안과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임.
美상원, 경기부양법안 내일 표결	상원은 현재 8,2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로 이날 저녁 예비 투표를 거쳐 내일(10일) 전체 표결을 실시할 예정.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지난달 승인된 8,190억달러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법안과 절충 과정을 거치게 됨.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초 `프레지던트 데이` 이전까지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금융구제안도 내일로 연기	재무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금융구제안 발표를 상원의 경기부양안 표결 결과를 본 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하루 늦춤.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구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에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달러 약세..`금융구제안 기대→안전자산 선호↓`	9일(현지시간)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나타냄.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퇴색된 결과. 오후 3시23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1.3012달러로 전일대비 0.71센트(0.5498%) 상승하였고, 달러-엔 환율은 91.489엔으로 0.4040엔(0.4396%) 하락함.
국제유가, 3주 만에 40弗 깨져 [WTI: \$39.56 (-\$0.61)	국제유가가 3주 만에 40달러 선을 깨고 30달러대로 떨어짐. 상원에서 논쟁중인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침. 지난 주말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 일부 의원들은 7,8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는 당초 원안에 비해선 1,400억 달러 안팎 축소된 규모이고, 8,190억 달러인 하원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못 미침.
중증시 1월 상승률 17개월 만에 최고	중국 증시가 지난달 1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한화증권은 10일 발표한 증시보고서에서 "1월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9.33%로 2007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소개.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상승..美경기 부양책 기대	9일(현지시간) 유럽 증시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이날 유럽 주요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경기부양안 표결이 하루 연기된 데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
EU, 은행 레버리지 상한선 고려	유럽 은행들이 자본의 추가 확충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상의 레버리지 확대 제한에 직면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찰리 맥크리비 유럽연합(EU) 시장위원회 의원은 "리스크 자산 비중이나 VaR(Value at Risk;최대 손실 가능 금액)와 상관없이 레버리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한선이 필요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힘.
실업급여 신청 사상최고	노동부는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2만8,000명으로 1996년 7월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이후 월별 통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음. 이같은 수치는 작년 12월 9만3,000명보다 37.6% 증가한 것이며 지금까지 최고였던 작년 1월의 9만4,000명보다도 36.2%(3만4,000명)나 많은 것임.
美서 팔린 휴대폰, 10대중 4대 한국산	삼성전자가 지난해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도 치열한 미국의 휴대폰, 디지털 TV시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해 시장을 석권. 휴대폰은 미국 시장 진출 11년 만에 1위를 달성. 같은 기간 LG전자도 점유율이 크게 상승. LG전자는 전년(15.1%)에 비해 5% 넘게 점유율이 상승해 20.7%로 3위에 올랐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42%의 점유율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게 됨.
2차 건설·조선 구조조정 3월 중순으로 연기	은행연합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9일 "평가대상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2차 신용위험평가를 3월 중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차 평가와는 달리 대상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최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3월 중순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은 2008년도 결산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설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